

정보화시대의 전초기지, 대학도서관

90년대 들어 전산화 작업 활발... 예산·표준화 등 문제 산적

대학을 정보화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산화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9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는 폴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단계는 아니고,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빠르고 편리한 컴퓨터

고려대 중앙도서관(관장 김화영)은 93년 도서관 전산화계획을 수립했고, 이듬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재 자료의 90%는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하다. 카드목록이 있지만 학생들은 도서관 로비에 있는 검색대를 주로 이용한다.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주로 이용한다”고 정정아씨(지리교육4)는 말한다.

소장자료가 많아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데이터의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누락된 10%에 대한 입력작업과 소장정보와 입력정보를 일치시키는 작업, 그리고 검색 영역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펜티엄급 컴퓨터 50대를 구입, 도서관에 2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중앙도서관 개발관리실에서 도서관전산화 기획·추진한다. 3명이 전산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5명의 사서가 업무를 보조한다.

연세대 중앙도서관(관장 이성호)은 효과적인 도서관 이용을 위해 평일 오후 4시에 온라인 목록 이용지도를 한다.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학생들이 정확하고 다양한 검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연세대 도서관 관계자는 분석했다. 90년대 이전에 수집된 자료 가운데는 아직 입력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카드목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열람실 한편에는 CD-ROM 검색을 위한 컴퓨터들이 놓여 있다. 주로 원데이터로 접근하기 위한 2차정보를 담고 있는데, 종류마다 조작법이 달라 사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참고열람업무의 일환으로 CD-ROM 관리를 맡고 있는 권은경 사서는 공대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말한다.

어느 신문사에서 실시한 도서관 부문 대학 평가에서 4위에 오른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9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는

아직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한정되고 있다. 전산화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 공개념 인식이다.

관(관장 구자영)은 전자정보자원 부문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열람석당 학생수에서 뒤진 것이 4위가 된 이유. 비도서 자료부문이 29만 3천여종으로 다른 대학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모뎀과 인터넷을 이용, 외부에서도 도서관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학내에는 도서관으로 연결된 자체 네트워크가 있고, 전자정보실도 운영하고 있다. 전산전문가 3명을 포함, 52명이 도서관 전산 업무를 맡고 있다. 입학했을 때보다 컴퓨터가 더 늘어났다고 말하는 서명화씨(경영2)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자신의 정보검색 수준을 아쉬워 했다.

도서관 학생자율위원회라는 독특한 학생 자치기구가 있는 한양대 중앙도서관(관장 장세경)은 2층 로버 자료검색실에 컴퓨터 10대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5년 10월에는 3층에 전자정보검색실을 마련해 학생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전자정보검색실은 CD-ROM 검색용으로 7대, 인터넷용으로 3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있으며 70여종의 CD-ROM을 구비해 놓았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고, 시설·자료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자정보검색실의 김일규 사서는 말한다.

신속중인 중앙도서관이 내년 겨울 완공되면 한양대 학생들은 첨단 정보서비스를 향유할 전망이다. 전자정보검색실의 규모도 80평으로 확장되고 인터넷용으로만 30대의 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자정보자원 부문 대학평가에서 단연 1위로 오른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건국대 상허도서관(관장 남문현)은 정보검색실과 마이크로자료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보검색실의 서유선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으로 도서관 전산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표준화·공동수서·공동목록 작성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보검색실을 찾은 강사 조진국씨(식품가공학)는 자신의 유학 경험에 비춰 볼 때, 국내 대학의 도서관 전산시스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상진벽해’라는 것. 다만 유학중에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IBM 컴퓨터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정보의 공개개념 확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진교훈)은 93년 교육부로부터 전국 대학도서관 전산화 운영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 한국컴퓨터와 공동으로 솔라스(SOLARS)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34개 국·사립대학에 보급했다. 내년 2월을 목표로 MS-DOS 운영체제를 윈도우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목록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작업, 원거리에서 CD-ROM을 검색하는 방안, 폴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도 모색 중이다.

솔라스 프로그램에는 ‘건의사항’ 항목이 있다. 처음에는 기능보완과 도서구입에 치

우쳤던 학생들의 요구가 대출에서 수서, 열람에 이르는 도서관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은 건의사항에 대해 개인에게 회신을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전산화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이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 도서관 전산화는 폴텍스트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네트워크 형성이 관건인데,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이 말하는 도서관 전산화의 문제점은 예산·표준화·기본 자료·도서관 마인드로 집약된다. 도서관 전산화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덩치가 큰 도서관일수록 프로그램개발에 위험부담이 따른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쓰는 대학끼리는 상호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학교라도 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의 전산기종과 프로그램이 달라 상호 검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도서관 전산화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 도서관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기본 장서를 갖추지 않은 전산화는 공명불이라는 것. 일례로 전산화가 완료된 미국의 도서관들이 오히려 더 많은 종이책을 사들인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정보를 보는 관점의 변화. 고려대 도서관 개발관리실 방준필 주임은 “서양은 정보를 공개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우리는 독점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일 기자